



한국 사립대학 구조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석 주 | 전국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장

우리의 대학 교육도 이제는 글로벌 인력의 전문화·다양화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정원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 사립대학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I. 한국 대학의 최대 현안, 구조조정

지난 2004년도는 본격적으로 한국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올린 해로 기록될 것 같다. 국내 대학의 지각 변동을 촉진한 것은 물론 대학들의 '살생부' 로까지 일컬어졌던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과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결과가 발표된 한 해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4년 말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까지 현 대학 수의 25% 가량을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구조조정 방침은 대학사회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예견되기는 했지만 평소 경쟁력 제고에 등한시하면서 학생 수 격감으로 안절부절못하던 대학들로서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보

면 언젠가는 예고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쟁력 없는 국내 대학들에 흑한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정보공시제' 라는 새로운 카드를 도입하고 나섰다. 대학의 교육여건인 교수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을 공개함으로써 국·공립대학간의 통·폐합과 연합은 물론, 사립대학간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른바 한국 대학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삼각과고가 몰려오고 있는 셈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유사·중복학과간 M&A가 한국대학의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구조조정의 수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은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선택과 집중, 특성화, 다양화 등을 통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소위 '입학정원 역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대학의 최대 현안은 대학간, 그리고 학과간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II. 한국 사립대학의 이중고

한국 대학에 불어 닦힌 이러한 제반 현실 속에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국·공립대학은 한층 유리한 고지에서 생존전략을 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수입이 재정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사립대학들로

서는 학생수 격감과 국·공립대학과의 등록금 격차라는 이중고를 헤쳐 나가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 후발 지방 사립대학들은 실로 삭풍이 몰아치는 광야에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과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세계대학 순위와 SCI 등의 지표들은 대학간 서열화를 냉정하게 공개하고 있다. 선발 사립대학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골몰하고 있지만,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학들은 생존을 위한 방어적 구조조정의 도전 속에서 생존전략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대학교육도 이제는 글로벌 인력의 전문화·다양화를

확대, 추진하고 국가 인력수급 계획에 맞춰 정원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부는 국·공립, 사립대학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공립, 사립대학간의 수월성이 결여된 오십보백보의 유사·중복학과의 백화점식 개설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III.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렵고도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먼저 2005학년도 정시모집 입시 특징의 한 단면을 보면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등록금 부담이 적고 누리사업 등으로 좀 더 나은 장학금 혜택이 예상되는 지방 국립대학 선호경향이 뚜렷했다는 것이다. 한국 대학 시스템에서 현재의 대학교육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할 때 지방 사립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통해 구조조정의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1. 국·공립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국·공립대학과 명백히 차별화된 교육경쟁

사립대학은 선택과 집중에서 제외된 분야, 즉 지역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학문분야에서 산·학 협력 체제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선진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국공립 및 사립대학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력을 갖추고 사회적 이미지를 월등하게 제고하는 특단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일부 사립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반면, 지방 사립대학들은 국·공립대학에 비해 등록금, 학생유치 등에서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과거 한국 대학의 전형처럼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학과·전공으로는 현재는 물론 미래의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길러 내기는 불가능하다. 이는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의 '대학 졸업은 곧 실업'이라는 우리 교육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듯, 이러한 경쟁력도 단기간에 성취할 수는 없다. 실례로 최근 한동대학교와 같은 몇몇 지방대학의 사례는 우리 대학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동대학교의 경쟁력은 다름 아닌 교육의 내실화에 충실했다는 점이다. 이 당연한 이치를 지금까지 대부분 대학들은 소홀히 해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오직 학생선발과 숫자 채우기에만 급급했다는 얘기가 다. 따라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총장의 리더십과 대학 구성원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대학 경쟁력의 첩경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 과학적 예측을 통한 실용적인 대응 능력 키워야

급속히 변화하는 21세기 미래 사회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정확한 전망과 과학적인 예측

으로 실용적인 대응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기업과 맞춤형 실용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스템은 정부가 국립대 위주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격차를 유발하고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에는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이다. 비슷한 경우라면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학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인문학과 공학의 기초학문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인재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틀을 짜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사립대는 제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기업의 성공적인 재정확보방안 등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실례로 대구한의대학교의 한방화장품 '매향'이나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의 '구글(Google)' 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해외 취업 등 실용적 인재양성 절실

사립대학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다원화된 글로벌 시스템을 소화하고 적절히 활용할 줄 아는 실용적인 인재양성에 주력, 해외취업을 권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상황에 맞게 설득력 있는 표현을 할 줄 아는 실용적인 글쓰기와 합리적 토론에 충실한 리더십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인재가 곧 성장동력'인 한국에서 사립대학들이 우선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인재를 양성하고 EU, 남미, 제3세계 등의 지역연구를 위한 학과 등을 개설함으로써 취업의 다

각화를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해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인턴십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글로벌 인재양성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해야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특성화 방안의 하나로써 외국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글로벌(glocal)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교육을 지금보다 더욱 더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의 열악한 직업·고용시장에서 탈피해 지구촌 어디에서나 역량을 발휘할 줄 아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내지 못하면 한국의 사립대학은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립대학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진대학과의 국제교류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이를 촉진하는 방안은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하는 사립대학에 정부가 획기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대학이 국제화에 전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한국대학의 국제경

쟁력을 최단기간에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5. 국·공립 및 사립대학간 역할분담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사립대학은 선택과 집중에서 제외된 분야, 즉 지역특성에 맞는 실용적인 학문분야에서 산·학 협력 체제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선진 글로벌 교육시스템을 도입해서 국공립 및 사립대학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국·공립대학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포괄적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면 사립대학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된 분야를 개발해 산학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역할 분담을 확고히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대학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무엇보다 지방 사립대학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라도 성공하기 기대하고 대학 역시 내실있는 선진교육시스템의 정착과 슬림화된 체질 개선을 갖추는 노력에 더불어 하루 속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반 방침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Ⅳ. 뼈를 깎는 자구노력만이 살 길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비대한 수도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지방분권적 참여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과제이자 생산적인 어젠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대학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정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확고

히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무엇보다 지방 사립 대학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라도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기업경제의 악화와 그로 인한 극심한 취업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도 한국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내실있는 선진교육시스템의 정착과 슬림화된 체질 개선을 갖추는 노력에 더불어 하루속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반 방침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반적인 대학들의 변화 속에서 사립대

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만이 한국 대학의 미래는 물론 스스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이석주

전남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신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이며, 기획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무부 선발 초청으로 UCLA등 미국 대학에서 연수하였고 미국 Marquis판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되었다. 200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대학교기획실(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테네시 윌리엄즈 연구』, 편저로 『Contemporary American Play』가 있으며 『아름다운 이별』 외 다수의 번역서가 있다.

투·고·안·내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육 및 사회 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를 줄 수 있는 글, 최근에 발간된 국내·외 대학교육 관련 서적에 대한 서평,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보
내
실
곳**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개발부
전화 : 783-3891 팩스 : 783-3645 전자 우편 : infor@kcue.or.kr